

적기 방제로 고품질 임실쌀 생산 총력 ‘순창장류축제’ 지역 상권 상생

군, 이상기후 대응 ‘벼 병해충 공동방제’ 기존 연 2회→3회 확대 추진

임실군은 올해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기존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해 추진한다. 최근 기온 상승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병해충 발생 시기와 밀도가 변화함에 따라 적기 방제를 대폭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올해 방제는 1차 7월 20일부터 29일까지, 2차 8월 5일부터 14일까지, 3차는 8월말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공동방제는 항공·광역방제와 일반방제를 포함해 총9,900ha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 17억 5,150만원이 투입된다.

항공·광역방제는 사업비 14억 5,800만원을 들여 7,200ha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사업비는 군이 35%, 농협이 25%를 지원하고 농가는 40%를 부담한다.

7개 공동방제단이 참여해 전 면적을 드론 또는 광역방제 방식으로 실시하며, 약제의 비산과 약해 피해를 줄이고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탄이 적은 새벽과 오전시간을 중심으로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항공·광역방제가 어려운 조생종 재배지와 일부농가를 대상으로는 일반방제도 병행한다.

일반방제는 사업비 2억 9,350만원이



임실군은 올해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기존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해 추진한다.

투입해 2,700ha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군이 40%를 지원하고 농가는 60%를 부담한다.

농가에는 개별방제가 가능한 약제를 지원하며 항공·광역방제와 마찬가지로 3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방제 약제는 벼 병해충 공동방제 심의회를 거쳐 선정했으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따라 고추와 복숭아 등 지역 주요작물에도 등록됐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약제를 중심으로 선정해 인근 작물의 약해와 오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군은 이번 공동방제를 통해 도열병과 흰잎마름병, 깨씨무늬병 등 주요병해충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물론, 농촌 교량화와 일손부족으

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방제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넓은 면적을 동일한 시기에 일제히 방제함으로써 병해충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고품질 임실쌀의 생산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득수 군수는 “최근 이상기후로 병해충 발생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어 무엇보다 적기 공동방제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노동력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고품질 임실쌀 생산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병해충 방제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실=전충영 기자

순창군, ‘동행 페스타’ 참여업체 31일까지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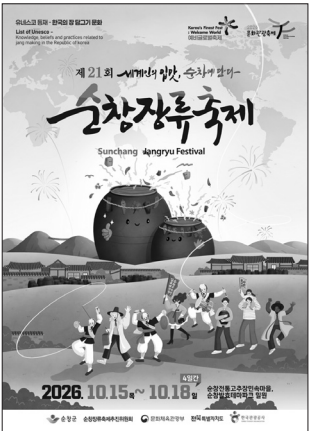
순창군이 제21회 순창장류축제를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행 페스타’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동행 페스타’는 축제 방문객의 소비를 지역 상권으로 연계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상생 프로그램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영된다.

순창군은 올해 제21회 순창장류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예비 글로벌 축제로 개최되는 만큼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통해 관광객 체류시간과 소비를 확대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축제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모집 대상은 관내 음식점, 카페, 제과점, 숙박업소, 농특산물 판매점 등 축제기간 정상 영업이 가능한 소상공인 업체이며,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할인 또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업체면 참여할 수 있다.

참여업체는 오는 7월 31일까지 전자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업체는 축제 홈페이지를 통한 업체 안내와 참여업체 홍보를 배



부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축제기간 중 축제장과 순창군 관내에서 2만원 이상 이용한 영수증을 제시한 관광객에게 ‘할금 매주를 찾아라’ 행운권을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현금 1등과 순창 특산물 등을 증정하는 소비촉진 이벤트도 함께 운영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보건소는 지난 20일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남원시보건소, 진드기 매개 감염병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남원시보건소는 지난 20일,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2025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남원시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통해 사업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현장에는 을지대학교 연구진, 전북도 감염병관리과, 전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남원시보건소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하여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사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남원시는 ‘싱싱생생 건강교실’과 연계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 교육을 직접 공개하며, △진드기 특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야외활동 시 행동요령 등을 교육했다.

이어 간담회를 통해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현황 및 사업 실적 점검 △우수사례 사업 운영 노하우 공유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기술지원 등을 진행하고,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 통

임실군, 1기분 확정 부가 가치세 현지접수창구 운영

임실군과 남원세무서는 임실군민의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2026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현지접수창구를 군청 1층 종합민원관에서 운영한다.

운영기간은 24일부터 27일까지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임실군과 남원세무서는 상호 협력을 통해 군청 종합민원관 내에 임시 신고 창구를 마련, 군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세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신고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 신분증,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현장에는 남원세무서 공무원들이 상주하며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세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세무서나 군청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국세청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전자 신고를 할 수 있다.

/임실=전충영 기자

순창군, 유소년 야구대회 대비 식중독 예방 위생점검

순창군은 오는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제10회 강천산배 전국유소년 야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참가 선수단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위생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8월 10일까지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지도와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대회 기간 순창을 찾는 약 2,000여 명의 선수단과 방문객이 안심하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중독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은 조리장의 위생 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조리식품 재사용 금지, 조리기구의 위생적 관리, 식품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의회 경제농정위, 정책 추진상황 점검

남원시의회 경제농정위원회(위원장 이기열)는 제282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부서의 주요 정책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모사업과 민생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가며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기열 위원장은 시 재정 악화 속에

서도 농업인 관련 예산 삭감은 불가하다며 하반기 증액을 강력히 요구했고, 소태수 위원장은 경비행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활주로 구축과 노후 경비행기 교체를 적극 검토, 양승철 위원장은 남원사랑상품권의 명절 및 축제 시기 예산 조기 소진을 우려하며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이상현 위원장은 지역 농협 등 관공지 내에 남원 특산물과 화장품을 연계한 전문 판매처 마련을 촉구하고, 장병욱 위원장은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사업의 지나치게 높은 시비 부담 비율을 지적했으며, 김한수 위원장은 소각장 폐열 활용 외의 사업 부문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금연구역 합동 점검·단속

임실군은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 금연구역, 담배소매점 내 담배 광고 등에 대해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임실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군 관계 공무원과 금연구지도원이 합동으로 터미널, 음식점, 학교 등 금연구역 1,010개소와 담배소매점 180개소에

대해 점검했다.

점검반은 점검시설에 대해 금연구역 표지판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및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지도·단속했으며, 특히 담배의 정의가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됨에 따라 단속 대상에 전자담배를 포함하여 집중 단속했다.

특히, 담배 광고에 가항 물질 함유

표시 제한 사항을 포함하여 담배소매점 내 광고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했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으며, 적발된 반복 위반 업소 및 흡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보건의료원 금연클리닉에서는 금연을 원하는 대상자에게 1:1 개별 상담을 통하여 금연보조제 및 행동요법제를 제공하고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임실=전충영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